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문화매일

제1401호 2023 / 6 / 1 / 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5/31(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오늘(5. 31, 수)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일단 개최했다가 이후 NSC로 전환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NSC상임위원회가 열렸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北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상패~청산 개통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동두천 상패 ~ 연천 청산 구간(9.85km)이 30일 개통되면서 1999년 처음 공사를 시작해 24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서울 경계인 의정부 장암부터 연천 청산면까지 36.8km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번 상패 ~ 연천 청산 구간까지 완전 개통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간선 도로축을 완성하고 기존 국도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상패 ~ 연천 청산 구간은 양방향 4차선 도로로 교차로 3개소, 터널 6개소(3,157m), 교량 11개소(994m)가 설치됐으며, 경기도는 동두천 구간의 보상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시속 80km/h 기준 연천-의정부 통행시간이 약 45분, 서울 중심지까지 약 1시간 가까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연간 약 1,0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숙원사업이 24년 만에 이뤄졌다. 오늘 개통된 도로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중요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인프라 확충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1994년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바다의 날을 홍보하고 해양수산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관계자와 어업인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군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 이후 국내외 인사의 축하영상, 기념사, 상징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에서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 6명이 수상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권정훈 前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올해는 인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 신사업 발굴 및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 EXPO'를 함께 개최해 해양수산식품 홍보, 해양수산 체험관 운영, 수산물 시식 행사 등을 진행하고, 해녀 사진전, 제트스키 전시, 토속관상어 특별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더 많은 도민께서 우리 바다의 잠재력과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구축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해양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성, 첨단전략사업 기반 갖추도록 지원"

도민과의 대화…"아열대작물실증센터·반도체 특화단지 등 강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가 30일 오후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장성군민과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장성군 농특산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의 관문 장성이 대한민국 내륙 관광 중심으로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핵심거점이 되도록,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기반을 갖추게끔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민선 8기의 도정 성과를 직접 소개한 뒤 "장성군과 전남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첨단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시설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광주·전남 상생 1호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의 경우 장성의 미래 먹거리로 전남도가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장성 남면 일대 3만 3천여㎡(1만 평) 규모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 광주 근교 지역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장성군민과의 대화도 직접 주재하면서 ▲청렴교육의장 확대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 개발 과정에서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전남도의 역할 주문 ▲장성 전체 청소년의 29%인 1200여 명이 사는 삼계면 일대에 전무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 ▲장성 전통주 육성 등을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들은 뒤 담당 국장들의 구체적 답변까지 유도해 호평을 받았다.

지방도 734호선 북이 구간 보행로 설치, 장성천 상류 구간(길이 700m·낙차보 1곳) 하천 정비, 아동전문병원 설립 등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날 현장에서 "전남의 첫 관문인 장성이 전남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단 개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첨단 3지구 개발사업 등 장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도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어 "전남 농업의 미래가 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2천여 명의 군 장병, 가족이 생활하는 삼계면 상무아파트 일대 주민의 교통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삼계면 상무아파트~주산리 이곡마을 간 군도 4호선 확·포장(길이 600m·폭 10m) 공사비 지원(5억 원)을 요청했다.

박종배/기자

문화재청, 경복궁 흥복전에서 듣는 조선 왕실 이야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원성규)는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총 4회에 걸쳐 경복궁 흥복전(서울 종로구)에서 궁궐 강연 프로그램「 2023 흥복전 왕실문화아카데미-'조선의 적장자, 왕으로 살아남다'」를 운영한다.

강연은 왕세자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한 동궁(東宮)의 정당(正堂)인 계조당(繼照堂)의 복원공사가 오는 8월 마무리되는 것을 기념하여 마련되었다. 계조당은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의 정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일제강점기 파괴된 상태였으나 지난 2020년부터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강연은 조선 왕실의 적장자(嫡長子)가 왕이 되는 과정을 국가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4개의 강좌로 구성했다.

먼저 6월 14일에 ▲ 경복궁과 국가의례(강제훈,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6월 21일 ▲ 왕세자 책봉례와 의물(양웅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학예연구사), 6월 28일 ▲ 왕세자의 조참의례와 계조당(김가람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7월 5일 ▲ 종묘와 왕릉, 그리고 문소전 제례(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회차당 일반 성인 25명으로, 비용은 무료(경복궁 입장료는 별도)이다.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6월 4일 오후 11시까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수강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추첨 결과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흥복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연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훼철된 지 110년 만에 복원되는 계조당의 의미와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지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지역으로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5.30일 밝혔다.

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 및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갖고 디지털 생태계 초기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인프라), ▲디지털 기술개발·실증 산학연 협력체계, ▲인재·기업 교류 연결망(네트워크) 등을 핵심입지에 집약적으로 구축한다.

시범사업에서 성과·경험 등을 축적한 지자체가 동 사업 종료 후에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총 10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경쟁률 5:1), 3월부터 약 2개월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입지적합성, ▲조성계획의 적절성, ▲지자체 역량·정책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종합심의 등 선정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디지털 기업의 집적 현황, 산학연 협력 가능성,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지자체 차원의 다년간 자체 조성노력 등에서 민간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 센텀시티 및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국·내외 유수의 디지털 기업이 입주해 있는 센텀시티를 판교와 같은 디지털 융복합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동 시범사업('23~'25)을 추진하며, 센텀1지구 내 센텀벤처타운(7층 규모), 센텀캠퍼스(18층 규모) 등 앵커시설에 지역 내 디지털 기반(인프라), 앵커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산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을 통해, 입주포화가 예상되는 센텀 1지구를 넘어 센텀2지구(도심융합특구 조성 예정), 한진씨와이(CY)부지 등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부지를 확대하고 국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물류 등 지역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23년 말까지 약 250여 개 디지털 기업의 입주가 완료 예정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이른바 에이비비(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우선 동 시범사업('23~'25)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집적, 총 464억 원 규모의 입주기업 전용 펀드 조성, 경북대·계명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포스텍의 연구실(7개) 및 연구인력(40여명) 유치 등 초기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계획으로 대형 디지털 연구개발(R&D) 사업(프로젝트), 제2수성알파시티로의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도 병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다수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수요가 높았던만큼 추후 시범조성 지역의 순차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마중물 성격의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지역 고유 특성·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신산업 거점 형성이라는 지속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중장기적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도,보건환경 분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영·호남이 뭉쳤다

영·호남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워크숍 개최, 상생 협력방안 모색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과 26일 전남 보성 제암산 자영휴양림에서 열린 '영·호남 보건환경분야 연구과제 공동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교류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공동 워크숍에는 전북, 전남,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담당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주요 연구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보건·환경분야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핵심 이슈 및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용출시험의 고액분리 방법에 따른 중금속 특성 연구 등 8편의 연구 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분야별 공동연구 프로젝트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에서는 신종감염병, 식·의약품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 평가를 논의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초미세먼지, 물, 자원, 순환경제에 관해 토의했다.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실험실 표준화 구축 및 정도관리 기술을 공유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을 통해 연구 활성화 및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과 주요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30일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78명 최초 임용

염종현 의장 "기존 인력과 '시너지' 발휘해 의정성과 극대화해야"

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최초로 임용했다.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및 신규임용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따라 신규 도입된 인력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채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함에 따라 제11대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이 전원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채용절차 전반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며 정책지원관 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루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4일 원서접수를 시작한 이래 5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달 여에 걸친 채용과정에서 총 342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8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경쟁률은 원서접수 기준 4.4대1, 면접전형 기준 2.9대1이다.

최종 합격한 정책지원관의 근무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와 국회 경력자가 40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경력자 28명(36%), 공공기관 경력자 27명(35%), 정책지원관 경력자 22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언론인 경력자 4명, 기초의회 지방의원 출신이 3명, 대학교수 경력자가 1명 있었다.

성비는 남성 56.4%(44명), 여성 43.6%(34명)를 보였으며 연령대는 30대 32명(41%), 40대 26명(33.3%), 50대 15명(19.2%), 60대 3명(3.9%), 20대 2명(2.6%) 순이었다. 또, 최연소 임용자는 27세, 최고령은 61세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도의원 의원의 평균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평균연령 42세의 정책지원관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경력과 전공분야에 따른 전문성과 연령, 성별, 희망부서 등을 감안해 1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수에 비례해 6명에서 8명씩 배치했다.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입법정책 검토,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참석 및 자료작성 지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며 업무성과 평가 등을 거쳐 최장 5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가 집단 형태의 의원 보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의원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의원 개별보좌관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사무처 인력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의정성과를 극대화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지방의회 운영실무', '공직자 윤리교육', '법제처 맞춤형 위탁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광주광역시, 의제 발굴·정책화 '민관협치' 본궤도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분과별 다양한 의제 정책 실현 노력

광주지역 현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광주 민관협치'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4월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이어 분과위원회별로 교차로 보행안전 방안,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마을활동가 양성, 자립청년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이를 정책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선 '제1기 민관협치협의회'는 전·일방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전방·일신방직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범시민 물절약 캠페인 동참 등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해 연대와 협업으로 지역의 공공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여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손명동 광주여자대학교 행정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옥희 광주서구가족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한영관 다온상담교육연구소장, 배민희 광주YWCA 소심당조아라기념관 관장, 김도형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의해 온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여성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자립청년 지원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제2기 민관협치위원회에 신설된 안전·도시·교통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오주섭)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주천 활용 방안, 교차로(우회전) 보행안전 확보 방안,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및 타랑께) 안전과 이용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선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날 열린 청소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운기)는 청소년자율공간 확대운영방안, 교육협력센터, 대안교육기관 관련지원 등을 의제로 추가했다.

특히 제1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청소년 무상 교통 도입에 대해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치한 성과"라며 의제가 정책화돼 무상 교통이 도입될 때까지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민선8기 공약사항인 광주형 청소년 자율공간 구축에 대해서도 민관협치를 통해 이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자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는 한편 유스호스텔 건립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다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자치·마을공동체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장화선)는 다음날인 24일 회의를 열어 자치·마을활동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시민참여수당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근거해 시민과 지역사회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보장하고 시정혁신 협치 기구인 민관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대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시민대표 공동의장에는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제2기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안전·도시·교통 분과를 신설하고,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소년, 여성, 청년, 자치·마을공동체로 재개편했으며, 위원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정책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격월로 운영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등을 합의하고 정책을 협의회에 제안, 정책화하는 등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홍돈석 시민참여비서관은 "광주시 민관협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협치 모델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민관이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관협치 분과위원회는 6월에도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년분과를 비롯해 9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서울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발의

송재혁 의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일본정부가 빠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검증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직접참여 보장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새마을시장 99개 점포에 '안심 디자인' 옷 입힌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판매대로 개선해 장보기 편리한 전통시장 만든다!

송파구 대표 전통시장인 새마을시장의 점포 판매대가 보기 좋고 장보기 편리하게 바뀐다!

송파구가 새마을시장 내 소상공인 99개 점포의 낡은 외부 판매대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연말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023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8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꿔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전통시장 판매대는 바닥가까이 낮게 설치돼있어 고객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불편한 구조였다. 또한 최근 전통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방문과 MZ세대 레트로 열풍 등으로 명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구는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장보기 편리한 새마을시장'으로 탈바꿈해 고객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시장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개별 점포 맞춤형 판매대를 제작한다. 시장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안심 디자인'을 입히고, 판매대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린다. 판매대는 쇼케이스, 계단식 판매대, 모듈형 바구니 매대 등 상품과 점포 특성을 살린 적합한 형태로 모두 교체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의 전통시장 유입을 공략한다. 전통시장에 관심 있는 새로운 소비층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잠실종합운동장 야구 관람객, 잠실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도 적극 활용한다. 향후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시 다국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안전한 시장 통행로 확보를 위한 상품진열 제한선의 일종인 고객안전선 준수에도 확약서 작성, 교육 이수와 계도 등으로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시장은 지난 2020년 강남3구 최초 아케이드 설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 외에도 시장통행로 포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송파구 대표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안심 디자인 사업으로, 새마을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극 대처해 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영등포구, '세계환경의 날' 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영등포구가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일 오전 10시 당산근린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5일은 28회를 맞은 세계환경의 날로써, 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ove earth, love green' 주제로 기후위기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고, 녹색성장으로 도약하는 영등포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구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10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한다.

아울러 구는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 시립문래청소년센터와 함께 ▲자가발전 솜사탕·비눗방울 만들기 ▲컬리링벽 색칠놀이 ▲미니 전통부채와 해충퇴치 계피 가랜드 만들기 ▲해양업사이클링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진행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 지구를 위한 다짐글 남기기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 속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활동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안내, 탄소중립 실천법 등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홍보활동도 펼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급식시설에 친환경 조리장치(인덕션)와 조리흄 저감장치(실내는 공기청정기, 외부는 집진기 등) 설치 ▲ESG 연계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업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을 추진해 생활 속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세계환경의 날 축제는 지구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건강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1인가구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책' 은평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지원

서울 은평구는 지난 2일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기의 조직화·지능화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은평구 1인가구는 85,908가구로 전체 가구 중 40.2%에 해당한다. 거주 형태는 전월세 비중이 83.3%로 매우 높다.

이에 은평구는 다양한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확인, 주거 예정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나홀로 집보기가 불안한 경우에는 1인가구와 동행해 현장에서 조언을 해준다.

매주 월, 목요일 오후에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거래 정보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 기능을 개선했다. 구청 누리집 메인화면 소식란에 게재된 배너의 링크를 통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최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민(40대, 남)은 절차와 전문성에서 매우 만족했으며, 친절한 조언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 시 생애최초계약, 교육부재, 부동산시장 정책 변화 등 정보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동주민센터서 CCTV 관제해재난상황 초기 대응한다!...전국최초

구, 재난상황 대비 '동주민센터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수해 입은 5개동에 설치

서초구가 폭우·폭설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해 구청 CCTV 관제시스템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서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은 폭우 · 폭설 발생 예보 시 구청 서초스마트허브센터 내 운영중인 약 5천 개의 CCTV 중에 해당 동의 CCTV를 볼 수 있도록 구가 동주민센터에 권한을 부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폭우 · 폭설 대비를 위한 '신속성', '효율성', 보안성'이 특징이다. 즉 폭우·폭설 대비 비상근무시 동주민센터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순찰에 의존하는 기존 대응방법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주민센터에서는 CCTV 영상으로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 후 신속히 해당 위험시설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다. 또, 현장 상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하며, 한정된 동주민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실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챙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장소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5개 동주민센터다. 구는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관제센터를 설치했다. 또, 재난 예보 외에 평시에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힘썼다.

장비는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각종 통신 · 보안장비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동담당자는 1대의 모니터로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나머지 모니터 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 위치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제공받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업무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들을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CCTV, 보안등, 자가통신망, 맨홀 등 시설물 위치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여름철 수해 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작년 1200개 설치했으며, 현재 335개를 추가 설치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소규모상가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 지원, △CCTV비상벨 스피커와 민방위 비상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방송 실시, △집중호우로 응급상황 발생시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 지원, △반지하주택 안전을 위해 어르신·아동 대피 지원을 위한 동행 파트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응 체제를 마련해 구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성북구, 2023 현장구청장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성황리 마무리

25일 마지막으로 '자치'를 주제로 2023 현장구청장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5회차 운영

현장 ·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온 성북구가 지난 25일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자치'를 주제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했다.

이로써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5회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된 '2023 현장구청장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장구청장실 마지막 회차에 동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 300여명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성북형 주민자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토론 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4명의 주민자치회장은 '주민', '자치', '꽃', '을', '피운다'라고 각각 적힌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했다. 함께 "주민자치 꽃을 피운다"라고 외치며 '성북형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각오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된 5건의 주민제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요청, 분과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워크숍 추진, 아동청소년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 진행, 주민자치 사업계획 제안 시 행정적 자문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성북구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주민제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즉문즉답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비율 조정', '협소한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 개선 요청' 등의 현장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며 느낀 고민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민의견 및 반응을 살피며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보내고 활발한 활동이어가는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 구청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2023 현장구청장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는 기존의 동별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행복, 청년, 공동체, 복지, 주민자치 5가지 주제에 대해 구청장과 주민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주제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됐다.

사전에 접수된 33건의 주민제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안된 18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참여자 간의 소통이 이뤄졌다. 또한 현장구청장실과 함께 운영된 오픈 채팅방은 참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구 현장구청장실의 전 회차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북TV'를 검색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화성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팔 걷어붙여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국·도비 확보 T/F 추진 보고회'개최

화성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국·도비 확보 T/F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이 부단장을 맡아 예산법무과, 정책기획과, 미래비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도로과, 첨단교통과, 건설과,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하수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총 12개 부서가 소속됐다.

이에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와 연계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사업을 비롯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4천550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3천315억 원, 화성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사업 217억 원 등 총 26개 사업에 국·도비 1조 3천 282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시 재정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부서 간 협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先 기반시설 확보, 後 사용승인 추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우선 확보 추진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1~4블럭에 대한 기반시설이 본 사업 사용승인 전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이루어진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덕이지구는 아파트 입주 후 10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지구는 체육공원이 조성되고도 고양시로 기부채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전에 기반시설이 우선확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개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1~4블럭 모두 합쳐서 약 1,100억원 규모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경우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 밖의 주요 기반시설로는 일산동구 애니골입구 사거리부터 애니골 길로 연결되는 ▲마풍과선교 교량 확장(4→7차로, L=60m)과 풍동2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일산엘로이에서 경의선 등을 횡단하는 ▲육교 신설, 경의선 횡단 철도 건널목 폐쇄 등에 따라 ▲지하차도 신설(B=11m, L=160m), 숲속마을로에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교량 신설(B=16.5m, L=250m) 등이 있으며 모두 사업시행자가 설치 예정이다.

고양시는 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공정계획 수립 후 공정실적에 대한 점검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부진 사유를 찾아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 공정 추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중 고양대로 1080번길(중로3-91호선)과 고일로(대로3-40호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가 협의를 통해 시행자의 위탁을 받아 일부 도시계획도로 등은 고양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 조성된 숲속마을, 은행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교통·생활 편리 등 생활 SOC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민불편 Zero City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광명시, 공예품개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광명시는 관내 우수공예품에 대한 판로확보 및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3년 공예품개발 지원사업' 희망기업(개인)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 기업 또는 주민등록지가 광명시인 자이다.

시는 신청자의 공예품 상품화 가능성, 지원 이력, 입상경력 등을 평가하여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설계 및 디자인 비용, 인건비 등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 공예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제52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한 11개 업체(개인)에게 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해 3개 부문에 입상한 바 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체육만큼 도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어. 경기체육 진흥 위해 노력하겠다"

김동연 지사, "체육은 복지, 복지는 투자, 고로 체육은 투자"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체육인과 만나 '경기체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경기체육 맞손토크'는 도내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장애 체육선수 및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임춘애,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여자축구 국가대표 지소연 선수 등 경기도를 빛낸 스포츠 스타가 함께했다. 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윤충식 도의원,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체육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동연 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스포츠 종목들을 언급하며 "저는 아주 열렬한 스포츠팬이다. 지사로 취임해서는 독립야구단도 가봤고 프로야구 개막전, 프로축구 개막전에도 가는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 있는 동안에 경기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저는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도지사보다 체육을 사랑하는 도지사를 만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체육인들은 ▲체육지도자 지위 향상 ▲국제양궁장 설립 ▲경기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 체육단체의 직장운동부와 도립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직장운동부 확대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세계대회 등 메가 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 선수촌 건립 등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각 발언에 대해 답변하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도의회,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라며 "또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윤충식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체육은 복지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1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비전2030을 만들면서 '복지는 투자다'라는 말을 했다. 두 말을 합치면 '체육은 복지다. 복지는 투자다. 고로 체육은 투자다'가 된다"라며 체육 활성화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활력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그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포인트제 도입 추진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1,540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

김동연 지사 "자동차산업벨트와 자율주행 중심지 연계 통해 K-미래차 밸리 완성 단계, 최대한 협조"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련 총 투자액은 1,540억 원이며, 약 50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에 취임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진 과 중 하나가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며 "저는 미래성장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첨단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다. 이번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 평택, 시흥 자동차 산업벨트와 판교, 김포의 자율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점점 완성돼 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같이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첨단모빌리티에 있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 한 팀으로 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입하는 항으로 미래자동차 특화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와 힘을 합쳐서 모든 행정지원 서비스를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모빌리티 산업은 눈이 부시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 더해서 공급망 이슈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평택시의 미래 전략과 부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현대모비스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관리하며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현대모비스는 평택 포승지구 4만7,891㎡(1만4,487평)에 모듈 공장을 설립하며 올해 7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해 2025년 2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현대모비스의 모듈 공장은 인근 화성에 위치한 완성차공장 대응용 생산시설로, 현대모비스의 국내 모듈 생산거점 중 최대의 투자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2020년 평택 포승(BIX)지구 1차 투자에 이어 이번에 더 큰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평택 포승(BIX)지구는 현대모비스의 모듈 공급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개발 단계부터 설계·시험·연구에 참여해 완성차에 모듈을 직서열 방식(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형태와 순서로 생산해 필요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미래모빌리티 확대에 맞춰 신개념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완성차에 맞는 모듈 사양을 실시간으로 공급함에 따라 생산효율 향상, 품질 경쟁력 확보 등 완성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만식/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녹색어머니회 의견 청취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회원 등 40여명, 소통간담회 참여

이동환 고양시장이 5월 25일 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봉사와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교통봉사를 실시하는 고양시 녹색어머니회와 소통했다.

이날 열린 '2023년 열린시정 녹색어머니회 소통간담회'는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일산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일산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매일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최종선정, 경제자유구역, 시청사 백석동 이전,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민선8기 고양시 핵심정책 및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녹색어머니회 측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스쿨존 교통봉사 사업과의 업무 협력, 안전한 초등학교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동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동환 특례시장은"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녹색어머니회에 감사하다"라며 "고양시는 교통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순항'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130만135㎡(39만평) 2조1624억원 보상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안양시, 2023 환경공무관 한마음 워크숍 개최

안양시는 5월 30~31일과 6월 1~2일 오페라리버하우스(경기도 가평군)에서 '2023 환경공무관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안양시 환경공무관 202명을 대상으로 직원간 소통 및 화합,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을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기 워크숍의 첫째 날인 지난 30일 환경공무관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체험 교육을 시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상스포츠를 함께 즐겼다.

또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효율적인 청소 업무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대화의 시간에 참여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환경공무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는 모든 환경공무관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1명의 환경공무관이 참여한 이번 1기 워크숍은 31일 힐링 산책과 소통 강화를 위한 분임 토의 후 일정이 마무리된다. 오는 6월 1~2일 진행되는 2기에도 나머지 101명의 환경공무관이 소통하고 심신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신우용/기자

신상진 시장, "성남·원주 양 도시 부합하는 특화사업 육성으로 상생발전" 성남시, 30일 강원도 원주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성남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원도 원주시와 상호 교류 및 우호 증진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창의도시 승인을 받은 원주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인 우리 성남시와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성남시와 원주시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양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시장은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후 미래를 향해 성남시와 원주시가 상호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성남시와 원주시의 자매결연 협약은 지난해 원주시의 자매결연 제안에 따라 올해 2월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지난 10일 원주시와 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을 거쳐 추진됐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성남시와 원주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증진 및 행정·경제 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산업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 및 관광자원 활성화 △행정 우수시책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성남시와 원주시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성율/기자

시흥시 임병택 시장, Btv 한빛방송 대담 출연

임병택 시흥시장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임 시장은 30일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 특집 대담에 출연해 민선8기 취임 1주년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대담은 시흥웨이브파크에서 개최됐으며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출연해 각 시의 현안과 다양한 정책 이야기를 나눴다.

임 시장은 먼저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중 가장 기억의 남는 일로 시흥시가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체결한 '경기 서부권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언급하며 바이오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경제, 문화·관광, 교육 분야별 대표 정책으로는 △ 시흥형 돌봄 SOS센터 △ 서울대 시흥캠퍼스 융복합 플랫폼 캠퍼스 조성 및 주요 상권 활성화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및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등을 꼽았다.

민선8기 정책 공약이기도 한 '시흥형 돌봄SOS센터'는 동 단위 설치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바이오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거북섬, 은계 지역 등 권역별 대표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화MTV 거북섬에는 인공서핑장과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며 세계적인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구축 중이다. 특색 있는 마을 교육을 추진 중인 19개 동 마을교육공동체와 1천여 개의 강좌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교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소개됐다.

특히, 임 시장은 시흥시가 불합리한 교통 체계상 외지로 인식되고 있다며 57만 대도시 격에 걸맞은 편리한 철도망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6일, 경강선의 시작점인 제1공구 월곶동 일원이 착공했고, 오는 6월 말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GTX-C 노선 역시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수많은 정책이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향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줄기로 잘 엮어서 민선8기에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도약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선8기 1주년 특집 한빛방송 공감토크는 오는 7월 3일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신우용/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만나 신도시 현안 해결방안 모색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개선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26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교통현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 차관과의 세 번째 공식 면담으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지난 두차례의 면담을 통해 건의한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이원재 차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3월 발족한 신도시 협의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들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중심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고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안사항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로, 이현재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애초부터 공업지역이 전무한 교산신도시는 현실적으로 자족용지 활용이 불가하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감일지구를 지하고속도로로 통과토록 계획된 것에 대하여 "서하남IC입구 사거리로 시점부를 변경하고 노선은 감일지구 외곽으로 경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석대교 설치에 대해 "수석대교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결정된 이후 9호선 남양주 연장과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고시 등 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수석대교는 왕숙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수석대교 건설비용(3,225억)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넷째로, (가칭)신덕풍역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 또한 드림휴게소 복합 환승센터를 3호선 역사와 연계하는 것에 동감했음을 전하며, "원도심과 신도시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3호선 환승 역사 위치를 드림휴게소와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GB해제 제도개선이 완료된 것에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강호/기자

경북도, 디지털 트윈으로 안전한 제조 환경 만든다

과기부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제조산업 실증'공모 선정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제조 산업 적용 실증'공모사업에 도내 기업이 실증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증기업 한중엔시에스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제조 기업으로 1년 간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제조안전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먼저 다양한 센서와 CCTV 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물 관리를 실시간 관제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실시간 영상기반 생산라인 이상 감지 △AI기반 설비 예지보전 △현장 작업자 및 주요 설비 위치 측위·관리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

눈으로 불량품을 식별하던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검수할 수 있게 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 설비, 부품 상태의 실시간 확인으로 설비 수명과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납품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작업자 위치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지, 쓰러짐 등 이상 감지에 신속 대응하고, 가스감지 등 센서와 연동해 작업환경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

경북도는 국가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2년 차부터 예산을 투입해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실증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혁신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제조현장의 지능형 제조안전 시스템 확산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환동해 지역 글로컬대학 공동 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지역 산업분야(원자력·수소·이차전지) 상호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인재양성 나선다!

울진군은 5월 30일 포항시청에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전무, 김정한 포스코퓨처엠 양극제연구센터장, 박지영 에코프로비엠 상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지역 글로컬대학 공동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이란 지역사회와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지역대학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포스텍과 동국대 WISE캠퍼스가 환동해지역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수소·이차전지 산업발전을 위해 글로컬대학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글로컬대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지역 산업분야(원자력·수소·이차전지) 지↔산↔학 상호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지역 및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및 연구 추진으로서 환동해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수소·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지난해 10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소 관련 8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수요와 산단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올해 3월 15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다. 군은 향후 원자력 수소 관련 대기업 및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자력수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라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대구지역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대구행복기숙사'개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확보

대구광역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5월 30일 오후 3시 30분,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수창동)에 지어진 '대구행복기숙사'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광역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비(88억 원), 사학진흥기금(310억 원, 교육부)과 국민주택기금(50억 원, 국토부) 등 건립비 총 448억 원을 투입해 2023년 2월 말 완공됐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1,000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생과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기숙사비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우 월 24만 원이며,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월 19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입주생의 안전을 위해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했고,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며, 장애인 입주생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로 건축됐다.

부대시설로는 청년센터와 지역대학협력센터가 입주하여 멀티스튜디오, 강의실,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의 소통·문화·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희망옷장'도 운영한다.

또한, 카페, 편의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들이 마련돼 대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개관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지역대학 총장, 입주생 등이 참석하여 대구행복기숙사의 개관을 축하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타 기숙사와 달리 공공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청년 주거여건 개선과 취·창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행복기숙사가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대면컨설팅 실시

의성군은 5월 30일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2023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 대면컨설팅'을 실시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률,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컨설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추진하며, 18개 사업을 전문컨설턴트와의 1:1 대면컨설팅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개선해 양성평등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앞으로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각 분야의 주요 정책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사업 등 매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 시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많은 군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가족센터, 프로그램 큰 호응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봉화군가족센터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15일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인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볼링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볼링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체력을 기르고 볼링의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참여도가 높다.

마지막 회기에는 '교육참가자 볼링대회'도 개최되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볼링교실에 참가한 한 아버지는 "평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배우면서 자녀와 한층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로카드를 활용한 부모 자녀 소통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타로카드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도 함께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한 참여자는 "타로카드를 이용해 자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배재정 봉화군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증대되어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중심상권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원도심 활성화 견인

경주중심상권 금리단길이 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와 흥겨운 음악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 쏘아 올렸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원효로 105번길 스타벅스부터 LG유플러스까지 총 130m 구간에서 열린'경주중심상권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에 약 8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개장 첫날인 26일에는 관광객 유입과 행사 홍보를 위해 황리단길 시비 앞에서 행사장으로 연결되는 뮤직팩토리 딜라잇의 거리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으며, 키다리아저씨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풍선과 행사안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27일에는 k-pop 커버댄스 공연과 MC의 현장 즉석 레크리에이션 쿠폰 증정 이벤트로 즐거움을 더했다.

'불금예찬'야시장은 행사장 내 야간 조명을 강화해 길맥포차의 분위기를 한층 살리고 시원한 생맥주와 더불어 닭 꼬치, 버터갈릭새우, 닭발, 육전, 똥집볶음, 야키소바 등 침샘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안주거리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며 일부 매대는 마감시간 전 준비된 재료를 모두 소진하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 외에도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홍보부스를 시작으로 원목 주방용품, 목공예 기념품, 스카프, 머리핀, 파우치, 비건베이커리, 수제쿠키, 타로점, 손금 등 플리마켓 매대도 알차게 구성돼 즐거움을 더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 김미승 단장은 "참여해주신 셀러분들과 중심상가상인연합회를 비롯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무사히 개장할 수 있었다"며,"불금예찬이 올해 10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침체해 가는 구도심의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중심상가 인근의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등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봉황대를 경유하여 구도심으로 유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라며,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중심상권만의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중심상권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은 26일 개장을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6월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혹서기에는 휴장하고 재개장 이후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부산시, 애니메이션 문화 및 산업육성 플랫폼 '애니랑 부산(Busan)' 개소

애니메이션 상영, 애니메이션 굿즈 만들기 체험, 애니메이션 제작 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는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에서 부산 최초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인 '애니랑 부산(Busan)'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지역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애니메이션 문화 및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이 선정돼, 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산애니메이션협회와 함께 약 1년 6개월간 '애니랑 부산(Busan)' 구축을 완료하고 오늘(30일) 개소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학교법인 화신학원 이사장, 부산경상대 총장,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사)부산애니메이션협회 회장,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최초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 개소를 축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민선 8기 도시목표인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애니랑 들락날락'과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구현을 위한 '지산학협력브랜치 제62호' 센터 개소도 함께 진행된다.

애니랑은 부산의 옛 필름현상소인 화신칼라 1~2층(1,022㎡ 규모)에 놀이, 디지털 체험, 학습 등의 기능을 담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과 부산 지역 기업의 애니메이션 상영, 캐릭터 상품 판매, 인재양성 등의 비즈니스 기능을 접목한 문화 및 산업육성 플랫폼이다.

1층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관 '애니마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실감마루', 보드게임, 독서,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놀이마루', 2층은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을 위한 교육실, 그래픽 관련 취·창업 컨설팅룸, 작품 전시 및 회의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애니랑 1층은 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첨단 미래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부모·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놀이터이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으로 조성됐으며, 비엔케이(BNK)금융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한 어린이 동화 250여 권을 비롯한 도서 약 1,000권과 보드게임 13종, 디지털 학습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돼있다.

애니메이션 상영관인 '애니마루'와 실감형 콘텐츠 미디어관인 '실감마루'는 부산 기업 등이 제작한 콘텐츠 상영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자 지역 기업에는 자체 지식 재산권(IP)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애니랑은 대학생, 재직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을 제공하며,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지산학협력 브랜치 제62호(특화 브랜치) 기업 ㈜코너스튜디오와 함께 애니메이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애니랑 운영시간은 1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방 운영되며, 2층 교육실, 컨설팅 룸 등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플랫폼인 애니랑 1층에 꾸며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지역 인재들이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성장하고,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지역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경북도,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환동해 블루오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모색

경북도는 26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광열 영덕군수, 군의원, 대학교수, 지역 수산인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북의 해양수산은 기후변화로 동해안에 난류성 해양생물의 우점화와 한류성 해양생물의 감소 등 어업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동해안의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구체적인 연구 개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의 해양바이오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유진 제주대 교수의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이충일 강릉원주대 교수가 "해양바이오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산업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박요섭 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 장미순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식품부연구관, 손영창 사단법인 한국해양생명과학회 회장, 안순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다. 앞으로 경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해 동해안 해양수산자원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달서구, '2023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鄕射禮)'개최

대구 달서구는 오는 6월 1일 오후 4시부터 월곡 우배선 장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월곡역사박물관에서 의병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2023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鄕射禮)'행사를 개최한다.

의병의 날(6. 1.)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기념일은 임진왜란 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날인 6월 1일로 선정해 지난 2010년 공포됐다.

달서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월곡 우배선 장군의 구국의 혼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의병의 날 의식 재현, 죽궁 진상, 활쏘기 시연 및 대회, 퓨전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예를 품어 활을 쏜다"는 뜻의 향사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고을수령 주관으로 효제충신하고 예의에 밝은 자를 주빈으로 삼아 활쏘기 시합을 하던 조선시대 행사를 재현했으며, 지역주민 및 계명대학교 외국인 대학생들이 대회에 직접 참가해 특별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제공 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구국의 혼을 이해하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안동시, 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동남아 한류 열풍 중심 타이베이서 안동 관광 선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부스 운영

안동시가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타이베이에서 안동 관광의 맛과 멋을 선보였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대만 교통부 관광국과 타이베이시 정부가 주최하고 타이베이시여행협회가 주관하는 관광박람회로 13개국 250개 관광 관련 업체·기관이 참가하고 30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안동시는 단독으로 안동시 홍보부스을 운영해 일반 관람객과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유네스코 유산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함께 하는 안동의 4계절 포토존과 나만의 하회탈 만들기 체험은 안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며 관람객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안동 알리기 퀴즈 이벤트, 여행사 바이어 상담회, 현지 언론(ERA TV, NEXT TV)과의 인터뷰로 안동 관광 명소와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만 현지인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안동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했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보다 많은 대만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소수서원 • 선비촌 관람시간 변경

올해 말까지 소수박물관 휴관으로 '관람료 30% 감면'

영주시는 하절기(6~8월)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옛 선비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의 관광객들에 대한 관람 시간을 변경한다.

이번 관람시간 변경은 춘절기(3~5월)에 비해 입장 시간과 관람 시간이 1시간씩 연장된다. 하절기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는 낮 시간대가 길어짐에 따라 관람객들의 늘어난 활동시간에 맞춘 것으로 영주시는 계절별로 소수서원 등의 관람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시는 유네스코 등재 당시 강조됐던 서원 주변의 '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수서원의 만이 가진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둘레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레길은 소수서원 입구인 매표소에서 시작되어 취한대-광풍대-소수박물관-영귀봉-소혼대를 잇는 약 1.3㎞ 구간이다.

한편, 소수박물관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으로 기획전시실을 제외한 박물관 본관을 6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휴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수박물관 휴관 기간 동안 소수서원(선비촌 포함) 관람료 30%를 감면한다.

윤근수/기자

▲소수서원 강학당 전경

달서구,'너랑나랑 3삼5오 데이트'성황리 운영

대구 달서구는 지난 26일 달서선사관에서 개최한'너랑 나랑 3삼5오 데이트'에서 4커플이 매칭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상대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히 3번의 만남자리를 마련했다. 5월 13일과 20일은 달서목재문화관에서 전문 행사자의 사회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는 ▷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 커플 레크리에이션 ▷ 원목피크닉테이블 만들기 체험 ▷ 미션게임을 진행했다.

5월 26일에는 달서선사관에서 계명문화대학교 하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김평빈 교수의 와인클래스 수업을 진행하고 최종 커플을 선정 했다.

한 참가자는 '서먹하고 낯선 상황이지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목재, 와인 수업으로 단순히 대화하는 만남행사를 넘어서 와인 예절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 더 좋았다'라고 밝혔다. 달서구는 미혼남녀 대상의 만남 행사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짝을 직접 찾는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 도 운영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목재문화관에서 함께 만든 원목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와인을 나누면서 달달한 인연을 이어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결혼1번지 달서구로서 청년들이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결혼친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한울에너지팜, 재개관 후 1년 5개월 만 방문객 5만 명 달성

– 1985년 개관 후 누적 방문 500만 명 달성 앞둬, 기념행사도 시행 예정
– "지역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한울본부로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24일, 한울에너지팜에서 5만 번째 방문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울에너지팜은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지난 2021년 12월 29일 재개관하였다.

그동안 한울에너지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울진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어린이날 행사 등을 가졌고, 지난 24일 박범수 본부장을 비롯한 대외협력처장, 홍보부 직원들이 5만 번째 방문객을 맞이하여 꽃다발과 함께 울진에서 자란 소나무로 한정 제작된 플레이팅 도마를 증정했다.

특히, 이날 5만 번째 방문객인 정민진씨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한울에너지팜에 방문했는데, 아이가 자란 후 다시 방문하여 감회가 새로운데, 이렇게 5만번째 방문객이란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너무너무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울에너지팜은 1985년 최초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499만 6천 명이 방문했으며,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앞두고 선물 전달 등 기념행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울관계자에 따르면,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다채로운 행사 기획을 통해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역민과 관람객과 함께 하는 한울본부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변경조정 실시!

– 6.1.(목) 0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목) 0시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1일(수), 변경 고시했다.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며,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3.20.)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해제 등을 종합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며,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근수/기자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6일 현충일 추념식, 25일 6.25전쟁 행사 등 국가기념일 행사 개최
– 사이버 참배관 운영, 입원국가유공자 위문, 모범 보훈가족 표창 등 예우
– 홍준표 시장,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뜻 새기는 시간 되길"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대구광역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보훈행사를 개최한다.

오늘 오전 10시, 앞산 충혼탑에서는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제23회 호국영령 추모제 및 호국사진 전시회'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구광역시지부 주최로 개최되며, 오전 10시, 동구 망우당공원 임란호국영남충의단에서는 임진왜란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의병정신을 기리는 '제13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현충일인 6일(화), 오전 9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기관·보훈단체장 등의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9시 54분 앞산 충혼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된다. 특히 10시부터 1분간 대구광역시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려 모든 시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일반 시민이 참배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충혼탑 위패실을 개방하며, 온라인으로 참배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시(市)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또한, 10일(토) 오후 2시, 수성못 상화동산에서는 시민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제10회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개최되며, 25일(일) 11시, 6.25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6.25전쟁 73주년 행사'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등 6월 한 달간 다양한 보훈 행사가 계속된다.

대구광역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1급 중상이자,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등 185가정에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모범 호국보훈시민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충일을 전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동반가족 1인 포함)은 대중교통(시내버스(6.6) 도시철도(6.5.~6.7.)) 및 앞산케이블카(6.6.) 무료 탑승이 가능하고, 네이처파크 할인(6.1.~6.30, 종일권 1만 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비, 꿈과 이상을 걸다. 현판懸板' 개최

영주시는 3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소수박물관 별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비, 꿈과 이상을 걸다. 현판懸板'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수서원과 영주 지역의 옛 건물에 걸렸던 편액扁額, 명언이나 각종 기록을 담은 기판記板, 시를 담은 시판詩板 등 50여 점이 소개된다.

대표 전시 현판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소수서원 현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봉서루 현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인 만간암에 걸려 있던 만간암과 정안와 현판, 조선시대 명필가 고산 황기로가 쓴 전계초당 현판 등이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와 3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는 현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1부에서는 '배우고 새기다'라는 주제로 소수서원, 의산서원 등 서원에 걸렸던 현판이 소개된다.

또, 2부는 사당과 재실에 걸렸던 현판들을 전시해 '추모, 기리다'의 의미를 새긴다. 3부에서는 '머물며 수양하다'를 주제로 지역의 고택과 정자에 걸렸던 현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소수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이 현판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꿈과 이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현판은 대부분 한문이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양과 글씨를 감상하다 보면 글귀의 오묘한 뜻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개막식은 6월 8일 오후 2시 소수박물관 별관 앞뜰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환동해 글로컬대학 공동추진 위한 MOU체결

자치단체·산업계·대학 상호 협력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공동 대응키로

경주시가 포항시, 울진군, 포항공대, 동국대WISE캠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환동해 지역 글로컬대학 공동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포항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지자체, 학교,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자치단체,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정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발맞춰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컬대학은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해 1개교 당 5년 간 총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원자력(경주)·이차전지(포항)·원자력수소(울진)의 환동해 글로벌 선도기술 밸류체인과 지·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머리를 맞댈 작정이다.

세부 협약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글로컬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대학의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협약기관(지·산·학·연)의 원자력·수소에너지·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협력 △협약기관((지·산·학·연)의 인적, 물적 교류 및 포괄적 상호협력 지원 △기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협력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의 SMR 국가산업단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포항의 이차전지산업과 연계해 지·산·학·연이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 글로컬대학 및 환동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별천지 영양 지킴이! 탄소중립 실천 워크북 발간

– 영양교육지원청, 초·중등학생용 탄소중립 워크북 제작
– 김유희 교육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에 계기 될 것"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등학생용『 별천지 영양 지킴이! 탄소중립 실천 워크북』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직 초·중등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제작된 워크북은 해누리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해, 달꿈이와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실천 활동, 뫼봉이와 함께하는 학교·지역에서의 실천 활동 등 총 3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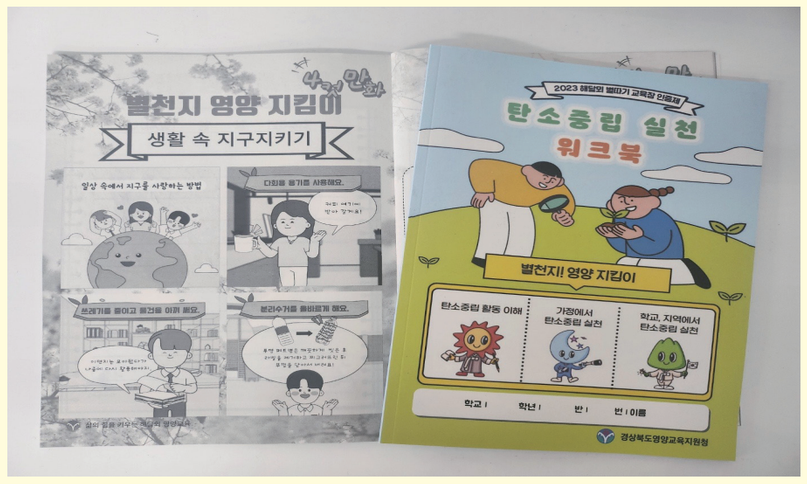
워크북 구성으로 먼저, 탄소중립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의 개념과 워크북 사용 설명서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일기장, 별천지 영양 지킴이 만화, 포스터, 체험 활동 보고서, 탄소중립 용어 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누가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함께해요! 영양 속 환경 보호' 코너를 통해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 반딧불이 생태 체험 마을 특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 등 영양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생태 체험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높혀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별천지 영양 지킴이 활동은 2023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와 연계하여 탄소중립 실천 워크북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생활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별천지 영양 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영양의 생태,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워크북을 발간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미래전략산업 투자 유치로경남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다

30일 부산에서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수도권 이외 지역 최초

경남도는 30일 오후 부산에 소재한 그랜드 모멘트 유스호스텔에서 '2023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영남권 기업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재투자기업 네트워킹, 경남의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발표, 투자협약과 맞춤형 상담 등이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업과 투자유치는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기업인들의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유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드쇼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기존 형식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유치하고자 영남권에서 최초로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경남의 경제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2조 2,337억 원 규모로 2,0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경남도는 5월말 기준으로 70개사, 6조 1,707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년 5월말 누계 실적은 61개사 2조 8,9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대폭 신장(212.8%)됐다.

한울HCDC㈜는 함양군 일원에 1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함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515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데이터센터 분산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남태양유전㈜는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하기로 했으며, ㈜에이알알루미늄은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알루미늄 전기차의 배터리팩을 제조하고자 633억 원의 투자와 52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한다.

㈜지이브이모터스는 밀양나노국가산단에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427억 원의 투자와 43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는 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진해구 웅동배후단지에 26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직원 100명을 채용한다.

서울 소재의 물류단지 개발 회사들로 구성된 레드우드그룹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김해 일원에 1,800억 원의 투자와 200명의 신규고용을 확정했다.

㈜해훈은 남해 창선면 일원에 402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설하고자 2,3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확정하는 한편, 호텔 운영을 위해 ㈜호텔신라와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지난 1분기에 달성한 남해군 라이팅아일랜드 등 4건, 6,523억 원의 대규모 관광투자 실적에 이어 유치한 것으로, 남해안 관광을 선도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열교환기 제작업체인 디아이시스템㈜는 LG전자의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321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을 고용하며, 로만시스㈜는 국내외 전동차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창원국가산업단지에 825억 원의 투자와 6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스템은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에 150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채용해 항공기 핵심 부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에스앤케이항공㈜는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에 항공기 부품 제조 증설을 위해 36억 원의 투자와 85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한다.

㈜유니테크산업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에 최신 합성기술 연구 및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80억 원을 투자하고 15명을 고용하기로 했으며, 날코코리아(유)는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양산어곡일반산업단지에 470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직원 31명을 채용한다.

친환경 골판지를 제조하는 신대양포장㈜는 친환경 포장의 수요에 대비해 함안 칠원읍 일원에 735억 원의 투자와 94명의 고용을 확정했으며, 총기부품 제작업체인 케이테크㈜는 총기류 제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진주 정촌면 일원에 800억 원을 투자하고 400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 방위산업를 비롯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센터, 전기차, 스마트 물류 등 신산업에 주력하는 한편, 남해안 관광과 지역 인프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경남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투자지원 제도 강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현/기자

부산시, '2023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 개최

스페셜티 커피 교육에 특화된 첫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세계 각국의 커피 전문가 170여 명 참석

부산시와 '스페셜티 커피협회'(SCA ; Specialty Coffee Association)는 커피산업의 국제적인 학술 기반 마련과 커피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2023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을 오늘(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아스티 호텔(동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스페셜티 커피협회'의 연례 커피 학술제인 '스페셜티 커피협회 센서리 서밋'의 국제적 커피 특화교육 판(버전)으로 구성하여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10개국에서 커피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환영행사, ▲커피 가치평가(이론, 묘사, 정동, 관능), ▲커피의 단맛 조사연구 갱신(리서치 업데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강연은 '스페셜티 커피협회'연구소장이자 '커피 사이언스 파운데이션'(Coffee Science Foundation) 대표이사인 피터 쥴리아노를 비롯한 세계적 커피 전문가들이 맡는다.

특히,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되는 환영행사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하여 부산을 방문한 '스페셜티 커피협회' 임직원과 참석자를 환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커피산업 육성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산 대표 커피축제 육성을 위한 '지역 커피 축제(페스티벌) 개최', ▲커피 관련 기업의 마케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월드오브커피 아시아'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세계적으로 커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커피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 우수한 입지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춘 '부산'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남해군에'호텔신라'들어선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호텔신라(주) 및 (주)해훈과 '남해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2,300억 원 규모인 '남해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은 창선면 서대리 일원 2만 9,14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호텔&콘도미니엄 403실과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해훈'이, 호텔 운영은 국내 호텔분야 최고 브랜드인 호텔신라(주)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발맞춰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한 것이어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하는 남해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이와 연계한 민자유치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텔을 운영할 호텔신라(주)는 서울 장충동 더 신라호텔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29개의 호텔 프라퍼티를 운영 및 개발 중에 있고 동남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 12개 사업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남해군에서의 호텔 운영 시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국내 호텔분야 최고 권위를 자라하는 호텔신라가 우리 군에 조성되는 것이어서 대단히 기쁘다"며 "천만이 찾는 생태관광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완수 지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장충남 군수를 대신하여 류해석 부군수, 호텔신라(주) 김상현 개발총괄상무, ㈜해훈 석훈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용준/기자

영양군지역사회보장協,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리더십 교육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30일 종합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실무분과 및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세대간 이해와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된 박중근강사는 ▲조직 내 세대갈등 ▲꼰대가 아닌 리더로 발전하기 등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소통이 원활할수록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팀워크를 높여주어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가져오며 또한 업무 만족도도 높아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조직의 기여도 향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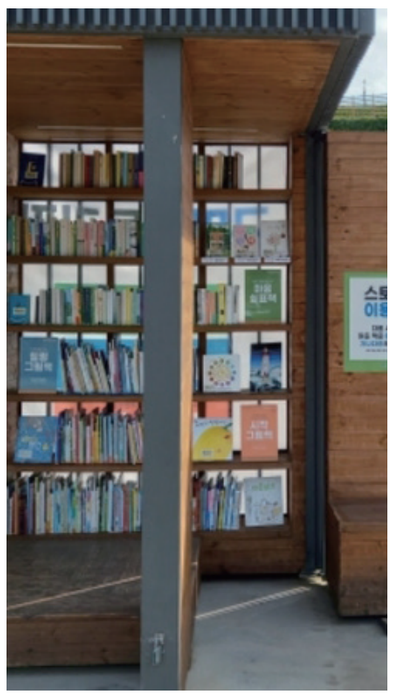
교육에 참여했던 한 실무종사자는 "우리 조직의 세대차이, MZ세대 이해를 위해 고민 중이었는데, MZ세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해야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자들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변화와 소통 의지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세대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힐링공간 스토리 팟…북 큐레이션으로 새 단장

산책길에 읽기 좋은 도서로 재구성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든 야외독서공간'스토리 팟'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성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도서구성 재정비는 비치도서 중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돼 변색되고 노후화된 도서와 출간된 지 오래돼 이용가치가 떨어진 도서를 선별해 신간 및 추천도서로 교체하고 스토리 팟 방문자 맞춤 큐레이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원의 산책길에 위치한'스토리 팟'의 특성을 고려해 "공원 속 휴식공간에서 찾는 여유"를 컨셉으로 야외에서 잠시 앉아 가볍게 읽기 좋은 도서 위주로 큐레이션했다.

금오산'스토리 팟'에는 이숙현, 이진우 지역작가가 추천한 '시작 그림책', 어른들을 위한 '힐링그림책', 잠깐 머물며 만나는 '마음쉼표책' 등 3가지 주제의 도서로 구성했고, 동락공원'스토리 팟'은 '과학관 앞에서 읽는 과학그림책'이 추가돼 총 4가지 주제 도서로 구성·비치되어 있다.

특히, 금오산 '스토리 팟'에서는 기존도서를 시민에게 공유·환원하는 "공유책상자"를 만들어 가정에 잠자고 있는 도서와 스토리 팟의 진열이 끝난 도서를 1대1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장터도 마련했으며 시민 자율로 운영된다.

새롭게 정비된 금오산'스토리 팟'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락공원 '스토리 팟'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선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은 "스토리 팟 오픈 이후 첫 도서구성의 변화시도로 새롭게 정비된 책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스토리 팟에서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청송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30일 청송여자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청송군,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송재향경우회 등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청송여자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에 대해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 개선 의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은 매년 새학기, 청소년의 달, 휴가철, 수능 전후 등 시기별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도·단속 활동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플라스틱 첨단소재 제조 전문기업 한국폴리아세탈(주), 원주 신공장 준공식 개최

76억 원 투입 신공장 건립, 3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기대

플라스틱 첨단소재 제조 전문기업 한국폴리아세탈(주)은 30일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신공장을 완공,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폴리아세탈(주)은 우수한 품질로 생산된 폴리아세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시장의 약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주 신공장은 메디컬 분야 플라스틱 소재를 특화 개발하기 위해 76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16,235.5㎡(4,911평), 연면적 5,485㎡(1,659평) 규모로 건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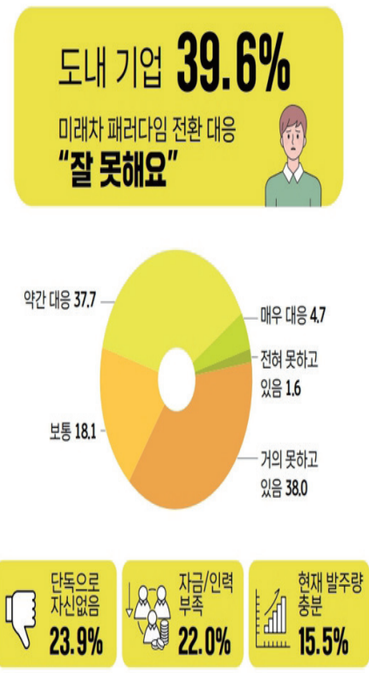
향후 자동차용 소재 생산설비를 추가하여 국내는 물론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판매하는 동시에 3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훈 원주시 부시장은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폴리아세탈(주)의 원주 공장 신설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며, "기업들이 원주시에 정착·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 미래 자동차부품산업 기반 구축 강화해야"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 미래차 전환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도급구조 개선 등 제안

충청남도 미래 자동차부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고유가와 탄소중립에 대응 가능한 기술 분야인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부품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김양중 선임연구위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전춘복 연구원 등 연구진이 발표한 인포그래픽에서 "지난 2020년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충남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연간 약 26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전국 3위 규모이고, 총 사업체수는 1,431개, 산업종사자수만 44,125명으로 각각 전국 4위와 3위 수준"이라며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남 북부권에 위치한 자동차부품기업 32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39.6%였고,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약간 대응+매우 대응)은 42.4%였다. 또한 대응의 어려움으로는 단독으로 추진할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23.9%, 자금 및 인력 부족은 22.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와 충남도에 요청하는 지원사업으로는 기반 구축이 2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업자금 지원 24.0%, R&D 지원 20.2%, 기술인력 확보 16.5%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미래차 관련 기술 중 센서(21.0%), 제어기(19.3%), 신소재(17.2%) 분야의 전문인력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충남도는 지난 2015년 대비 1·2차 협력사 감소, 3차 협력사 증가, 기업 간 도급관계의 지배·종속적 구조 증가 등으로 자동차부품생태계의 영세화와 생산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품시장의 다양화, 수출 다각화 등을 통해 상위벤더 수직·종속구조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054만 원 지급 결정

김성 군수 "축제가 지역경제 활력될 수 있도록 체질 바꾸겠다"

양양군이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54명(총 142건)에게 보상금 20,543천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며,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소재 515항공대대 비행장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양양군은 앞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142건의 산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최

아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고용노동지청,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아산시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 외국인 주민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2023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관계 기관 현안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아동 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4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호문화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정착 중인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외국인 통역봉사단과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활동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문화다양성과 복합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춘천시 역량평가 이수제, 투명한 인사관리 실현의 주춧돌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춘천시, 올해 최초 역량평가 이수제 도입 및 추진

춘천시가 올해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역량평가 제도를 투명한 인사관리의 주춧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량평가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제도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과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은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해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 공무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역량평가 이수제 도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벤치마킹, 핵심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역량평가 대비 교육도 함께 준비했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과장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역량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번 역량평가에서 과장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과장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검증하고 강화했다.

46명의 과장급 승진후보자가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20명 이상이 교육 및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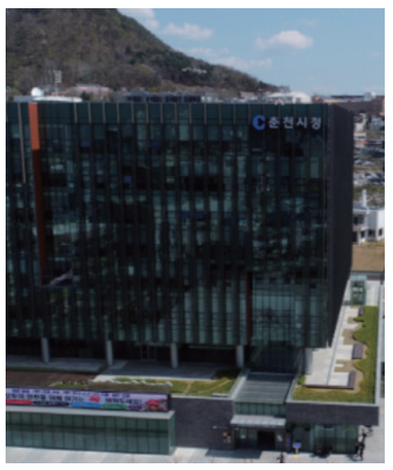
평가는 전직 고위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가 진행했고, 평가 역량으로는 문제해결, 변화지향, 동기부여 역량을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매우 우수(4.5점 이상), 우수(3.5 이상~4.5 미만), 보통(2.5 이상~3.5 미만), 미흡(1.5 이상~2.5 미만), 매우 미흡(1.5 미만)이다.

올해 첫 적용을 토대로 시는 역량평가 교육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역량평가 제도는 인사 분야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를 교육과 승진에 활용해 인사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철원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철원군은 지난 5월 24일 고석정국민관광지 경내 지질공원 협력업체(어울림카페)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군 주민협의체'창립총회를 가졌다.

환경부 장관의 인증으로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은 지난 2016년 3월 강원(철원), 경기(포천, 연천) 상생협력사업으로 시작했다. 또한 철원군은 지난 2019년 6월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2020년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세계지질공원 3주년을 바라보는 현재,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강원도 지질생태관광의 대표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관심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주민주도의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조직으로써 이날 채윤병 주민협의체 대표 등 _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마을사업의 첫걸음을 위한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군 주민협의체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활동인 만큼,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다가오는 2024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강원도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올 상반기 국비 총 247억 확보

강원도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 분야에 올 상반기 2건의 국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사업비 397억 원 중 국비 2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구축 사업'(과제명: 산악형도로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운행 안전성을 위해 고난이도 주행평가 시험로 및 인프라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 총 199억 원(국비 130, 지방비 69)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제명: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운전능력 평가 기술개발)' : 경찰청 / 총 198억 원(국비 117, 지방비 81)

5월 말, 최종 선정된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도와 횡성군이 협력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비 1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 및 평가 인프라는 아직 국내에 없는 실정으로, 경사지, 급회전 구간 등 고난이도 자율주행 평가 실증단지를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산악지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여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평가기술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도는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기추진 중인 AI 운전능력 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사업(2021~2024년)에 이어, 올 상반기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로 국비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되면서, 자율주행 거점도시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올 상반기 공모 선정된 두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부지에 주요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으로, 관제센터 시스템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은, "체계적인 자율주행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강원도 자율주행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 상반기 2건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자율주행 신산업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천안시, 행안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첫 선정

김성 군수 "축제가 지역경제 활력될 수 있도록 체질 바꾸겠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의 첫 시행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천안시는 '로컬크루가 만들어나가는 공간, 옛 법원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법원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옛 법원 앞인 신부7길 일원을 천안의 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해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법원 이전 이후 지속적 상권 쇠퇴와 겪으며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천안시민에게 법조타운 이미지가 강하고 반경 4km 이내 6개 대학교가 있지만, 문화를 향유할 공간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대학 문화가 형성된 천안 터미널을 중심으로 로컬브랜딩·서브컬처를 구축해 민간 주도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사업 준비과정에서 사업경험이 풍부한 아라리오, 비유니크 등 로컬브랜드와 경제적 자생이 가능한 청년기업 등이 참여하는 '로컬크루'를 구성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로컬 메이커 거점 공간, 로컬콘텐츠 거점 공간, 로컬브랜드 거점시설 등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신부동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시설 내에는 로컬콘텐츠 개발, 컨설팅, 교육 공간을 비롯한 커뮤니티 거점, 로컬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테스트베드, 경제적 자생이 가능한 기업 입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성공한 로컬브랜드가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조례와 재정적인 지원, 지역 브랜딩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6억 원(특교세3억, 시비3억)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10억 원을 추가 요청해 내년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 주변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리 조성을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향유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에 지역의 가치를 담은 골목문화를 만들어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로컬브랜드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 브랜딩을 활성화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 6월 1일 출시

서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

양양군이 6월부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양양 관광을 앱(App)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 앱인 'GOGO YANGYANG(고고양양)'이 6월 1일 출시,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강원도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총사업비 70억원(국비 35, 도비 10.5, 군비 24.5)을 투입하여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관광 핵심인 서비스플랫폼 고고양양(Web, App)이 드디어 6월 1일 모습을 드러낸다.

군은 서핑을 특화콘텐츠로 내세운 '내 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서프시티 양양' 구현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스마트 경험 및 편의를 즐길 수 있는 고고양양 앱을 출시했다.

고고양양 앱은 6월 1일부터 구글과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고고양양 앱 하나로 관광지 및 서핑정보 검색, 서핑숍 · 관광체험 · 음식점 · 카페 등을 예약 결제 할 수 있고, 양양브랜드 콜택시를 버튼 하나로 호출할 수 있다. 또한, 관광 관련 13개 카테고리 1,000여개 관광 스팟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핑특화 콘텐츠로, 양양군 주요 13개 서핑해변의 특징, 서핑해변의 실시간 파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파도웹캠, 서술형 기상정보, 서핑숍의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된다. 고고양양앱만의 서비스로서 서핑강습을 받으면 앱에서 모바일 서핑 강습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핑강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대표 관광지에서 AR(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낙산사,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남대천 생태공원 등 대표 관광지 8곳의 특색을 살린 AR 미니게임이 올 8월까지 순차적으로(6월에 5가지 게임 오픈) 출시된다.

군은 많은 관광지에서 AR게임 미션을 완료한 사용자를 월 100명씩 선발하여 양양몰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양의 아름다운 길을 스마트하게 걷고, 완주를 인증할 수 있는 '양양 바람길 스탬프 투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각 코스의 시작, 중간, 종료 지점에 설치된 안내간판의 QR 태깅을 통해 완주를 인증하면 된다. 군은 걷는길 완주자의 성취감 부여를 위해 1개 코스 완주시 2,000원권 쿠폰을 지급(선착순 3,000명)한다.

이 밖에 색다른 힐링 경험 제공 및 고고양양 홍보를 위해 회원가입 쿠폰, 비치요가 쿠폰, 스탬프투어 완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 쿠폰은 고고양양 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양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서비스플랫폼과 데이터플랫폼 구축,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6월 1일 서비스플랫폼 구축에 이어 6월 중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군 최초로 구축되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관광지 이동패턴 분석, 관광객 현황 및 분포도, 지역상권 및 소비성향 분석 등이 가능해진다.

군은 데이터플랫폼을 정책추진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 일반현황 정보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4개 해변에 동남아 파라솔과 썬베드를 조성하고 6개 해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오프라인 특화사업으로 죽도해변에 워케이션센터, 웨이브웍스 양양(Wave Works Yangyang)을 조성한다.

워케이션은 사계절 일과 휴양을 즐기는 새로운 체류형 관광 트렌드로서, 웨이브웍스는 워케이션 공간이자 양양 워케이션을 상징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워케이션센터 또한 고고양양 앱을 통해서만 사전예약 할 수 있는 고고양양 독점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마치고, 8월 시범운영을 통해 9월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워케이션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군은 본격적인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 스마트관광도시 기능 고도화 사업 및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요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관광객들이 스마트한 관광을 경험하고, 고고양양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청주시민 홍보대사 '클린청주' 홍보 캠페인

시민홍보 대사 30여명 클린청주 홍보 및 성안길 일원 청소

청주시 제4기 시민홍보대사가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주시 시민홍보대사 30여 명은 30일 상당구 성안길 일원에서'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 홍보 캠페인을 하고, 거리를 청소했다.

시민홍보대사들은 중앙공원에서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성안길, 삼겹살거리, 육거리 시장 일원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클린청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시민홍보대사들은 캠페인·거리 정화 활동과 함께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2023 기록문화주간 행사' 관련 리플릿을 배부해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시민홍보대사들의 이날 활동은 청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홍보하는 첫 단체 활동이다.

시민홍보대사는 향후 '홍보대사 개개인'또는 '시민 홍보대사 단체'로 시의 각종 행사·축제 현장 홍보활동, 꿀잼도시 청주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SNS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서윤 홍보대사는 "오늘 캠페인을 통해 시민 홍보대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청주시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제4기 청주시 시민홍보대사 36명은 지난 4월 위촉됐다.

김원호/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통시장·소상공인 청년 소통간담회 개최

11개 시군 150여명 전통시장·소상공인 청년 참여

충청북도는 5월 3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개 시군 150여명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청년과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했으며, 1부 청년장사꾼 김윤규 특강, 2부 소통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특강의 김윤규 강사는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이자 현 베지스타 신사업 총괄 상무로 '청년장사꾼'을 집필했으며 청년 소상공인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2부에서는 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정책 공유, 도정홍보로 소통간담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무신고 보조 방안,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요건 완화, 창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또는 공공요금 일부 지원, 재창업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시장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 점포환경개선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통해 민선 8기 소상공인지원 공약사항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 중이다.

그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만기도래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보증료율 인하(평균1%→0.5%)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4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민선8기 충북도 핵심 전략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예술·문화·관광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이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고객이 찾는 지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디지털 소비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다"라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전북도,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박차…유수 대학 • 기관과 협치!

글로벌 초격차 기술확보 역량을 갖춘 '핵심인력'과 '공정 및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라북도는 최근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유치 기업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특화단지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는 판단에서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핵심 인력 확보가 최우선과제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초이론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공정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난양공대(싱가포르), 도쿄공대(일본),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최고 수준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으며 지속적으로 연관 기관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배터리학과 신설과 교육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 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여 명 이상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에서는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에서도 이차전지 관련 전문교사 확보와 장비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 양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향후 5년간 4,000여 명 정도로 파악했다. 이에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기업에 채용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채용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등 도내 인력양성 지원기관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지원정책도 함께 계획 중이다.

특히, 전북도는 이 같은 인력의 양성과 공급은 기업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해당 기관은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사무국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인력양성 플랫폼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인력양성·공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전북도에서 보유한 교육 기반에 더해 국내외의 우수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인력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이차전지 인력양성에 충분한 자금과 인력 등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자매도시 부산 금정구 방문

"2023 금정산성축제 및 민주평통 정례회 참석, 영호남 갈등 해소 우호 다져"

강진군은 26일, 2023 금정산성축제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동정례회의에 참석을 위해 자매결연 도시 부산 금정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김종운 강진군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서순철 강진 부군수가 동행했다.

김종운 강진군 협의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에 따라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정례회의가 양 협의회의 우호 교류 증진 및 통일문제에 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방문한 이번 '2023 금정산성축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를 진행해, 부산 금정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강진군, 경남 산청군의 부자치단체장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서순철 부군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 이번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상호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남 강진군과 부산 금정구는 영·호남 갈등 해소와 도시 · 농촌간 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1998년 11월,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상호 축제 방문, 공무원 직원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추윤호/기자

구례군, 골목상권을 살리는 6명의 여전사와 업무협약식

구례군은 2019년부터 구례읍 봉동리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6명의 여전사가 있어서 화제다.

구례군도시재생센터는 메리홈(장선경), 한옥에살다(김정숙), 스윔(이채령), 모란상점(이형란), 선아씨가게(김선아), 리피&꼬물꼬물(신나리) 6개소 대표들과 5월25일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힘찬 출발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구례읍 힙(hip)한 골목길 만들기를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 상인과 갈등 조정과 해소, 블로그, SNS 홍보와 자료 제공 등으로 활기찬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구례읍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는 이들은 구례군 발전을 위하여 최근에 귀향·귀촌했다. 골목길 활성화의 참여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욕이 넘쳤다. 여섯의 대표들은 모두 여자인 것이 특징이며 장점이다. 구례읍 원도심 골목상권 살리는 '여전사'로 애칭되고 있다.

메리홈 장선경 대표는"구례읍은 임대료가 싸고 텃세가 없으며 터미널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잘 정비되어 역동적이라 장사가 잘돼서 매력적이다"라고 했다. 선아씨가게 김선아 대표는 여수, 순천 등 보따리 장사를 하며 키운 안목과 역량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한다. 모란상점은 예술공간이다. 김정수 대표가 운영하는 숙소는 한옥이지만 정원은 작은 유럽식이다. 스윔과 리피카페는 신세대들의 해방공간이요 휴식처로 사랑받는다.

여전사를 지원하고 육성한 전희정 수석코디네이터는"협약을 계기로 여전사 라인을 구축하여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해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례읍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완도 금일 건다시마 첫 위판, 올해 생산량 높을 것으로 전망

완도군은 지난 25일 다시마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금일읍의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건다시마 풍작 기원제 및 초매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건다시마 풍작 기원제 및 초매식에는 다시마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참석했으며, 해황 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를 올리고 건다시마 첫 경매를 개시했다.

첫 위판 물량은 약 14톤으로, 위판 가격은 1kg당 평균 9,500원으로 거래됐다.

최고 12,500원까지 거래되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값에 거래가 시작됐다.

다시마 채취는 7월 초까지 이어지며, 5월 초부터 생산돼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어민들의 일손이 분주한 가운데 군에서는 올해 총 82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가에 배치해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완도군은 해조류의 본고장으로 지난해 다시마를 15만 톤이나 생산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7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청정해역에서 자란 다시마는 맛과 향이 좋으며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특히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알긴산도 함유하고 있다.

한편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 해조류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된 바 있다.

양영율/기자

남원시, 둘이 하나 되는 약속!상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남원시 화성시 상생발전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

전북 남원시와 경기 화성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26일 춘향제 기간 중 화성시를 초청하여 최경식 남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 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본 협약서에는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농·특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지역 문제해결 정책 역량 강화△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각자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어 앞으로 상생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한번 더 도약하는 남원과 젊은 도시 전국 2위로 날로 시민들의 삶이 나날이 바뀌는 화성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남원을 방문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과 남원의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서 매우 기쁘다" 며 "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방문을 통하여 오래 지속되고 진정으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화성에서 남원까지 협약식을 위해 큰 걸음 해주신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원과 화성은 한 가족이 된 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펼쳐 나가자"고 답했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축제 체질 바꾼다"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김성 군수 "축제가 지역경제 활력될 수 있도록 체질 바꾸겠다"

장흥군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가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견인하기 위해 지역축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흥군은 현재 10여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일부 축제가 지역단위 축제에 머물러 있고, 시기별 분산 개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먼저 관광 • 축제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지자체 사례조사를 거쳐, 실무차원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기별·계절별 통합축제 개최방안, 장흥 삼합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축제 개최방안, 문림의 향 장흥 이미지에 걸맞는 문학제 개최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군은 이날 논의된 의견 및 방안에 대해 별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축제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며, "축제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머니품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여름밤의 낭만과 함께, 순천시 싱싱포차 여름의 맛 개최!

순천시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4일, 3일간 '싱싱포차 : 활력충전, 여름의 맛' 행사를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역전시장 제3주차장(풍덕주택길 19)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전남 동부권 수산물 최다 집결지로 신선한 식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역전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싱싱포차 : 봄의 미향' 행사 이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철 식재료인 붕장어와 전복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등, 제철 음식을 숯불에 구워먹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역세권 주민이 주도하는 순천 역전 마을 조합 및 역전시장 상인회가 이끌어 갈 상설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관계자는 "6월 '싱싱포차 : 활력충전, 여름의 맛'은 역세권 주민협의체의 주도로 진행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운영을 한 만큼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지역 행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여름이 다가오니 안전과 위생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의신면, 광주 북구 적십자봉사회와 해양 정화활동 실시

진도군 의신면이 광주 북구 적십자봉사회원 100여명과 함께 최근 의신면 수품리 해안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마을 인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로와 해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바다에서 떠밀려온 폐그물과 폐어구 등 방치된 해양쓰레기 1.5t을 수거했다.

진도군 의신면 관계자는 "바다는 후손들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신안군, 마늘 재배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에 나선다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

신안군은 지난 26일 마늘 수확 기계화 현장연시회를 개최하고 마늘 줄기 절단, 줄기 파쇄, 수확 등 마늘 재배에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시회는 신안군의 '양념채소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마늘 전 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정립 및 기계화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배 방법에서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줄기 절단 및 수확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관행대비 작업시간 최대 80%, 작업비 60%까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안군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는 기존 생산기계 체계를 벗어나 기계, 재배, 저장까지 투입되는 공정별로 현장에서 시연하는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델 현장실증'으로 지역 맞춤형 일관기계화 재배 기술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시범사업 이외에도 생분해성 멀칭필름 확대 보급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양파 우수화 모델 사업 추진 등 밭작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최근 급격한 농업인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계화 기술 정립 및 확대 보급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토지면 하죽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풍광 조성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24일 토지면 하죽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죽마을은 2021년부터 시행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아름답고 아늑한 마을 경관을 조성해왔다.

올해도 주민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꽃밭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김선열 이장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효숙 토지면장은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면에서는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만들기 사업대상으로 1년 차 사업 대상 7개 마을을 포함한 총 22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각 마을에서는 마을 특색과 유래에 맞는 마을 가꾸기를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본부' 구성 제안

50주년 맞춰 5·18의미 재정립 '나들의5·18위원회' 구성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할 기구의 구성을 모든 정치권과 5·18단체, 민주화단체 등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43주년 5·18 기념주간이 마무리 됐다"며 "이번 오월에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간, 대학,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193개의 5·18행사를 열었다. 풍성한 행사들을 통해 5·18 43주년을 기념해 주신 시민과 여러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남겨진 과제들도 많다.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모두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전문 수록은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중단시키고, 그 정신을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대통령 5·18기념사에서 헌법전문 수록 언급이 빠져 그 말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모두 허탈한 마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며 "우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가칭)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 모든 정당과 5월단체, 민주화단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시장은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80년 이후 태어난 광주의 젊은 시의원들이 '5·18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날선 질문을 던졌다"면서 "그 질문은 5·18을 경험한 세대, 5·18의 주인임을 자처한 이들, 5·18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을 향하고 있다. 5·18세대인 저도, 광주시도 성찰하고 응답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5·18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제는 자신만의 성역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5·18 모든 주체들이 함께 '나들의 5·18위원회'(가칭)를 꾸려 2030년 50주년까지 5·18의 의미를 재정립하자"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5·18의 도시이고 5·18은 광주의 날"이라며 "5·18 기념행사는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사가 돼야 한다. 특히 민주평화대행진과 5·18전야제는 시민참여와 시민공감이라는 큰 원칙 아래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 이제 내년 5·18 44주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병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동부본부 일자리부서 등 이전 도민 뜻 모아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지역 지원 건의 등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동부지역본부의 본부장 2급 직제 승인, 가장 중요 부서인 일자리와, 천년 역사문화를 품은 곳으로서 큰 역할을 할 문화 부서가 가는 것을 도민이 잘 납득하도록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동부지역본부에 어떤 업무가 가야 하느냐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민, 도의회의 뜻을 잘 모아 의회 통과로, 7월 정기인사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2급 본부장은 명실공히 총괄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장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그 기능을 잘 하도록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동부본부에 배치되는 직원들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광양항·여수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서 이관이 언급됐지만 기존 환경·산림 부서와 함께 기술파트 위주로 구성되면 일반 도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부서 역시 관광객 1억 명 시대 실현과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을 위해 본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일자리와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 업무를 할 일자리투자유치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문화융성국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애니메이션클러스터 등 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선 이전 지역 지원 규정 구체화를 또다시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전 대상지역 지원이 중요한데, 특별법 자체가 종전 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전지역 지원,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의견도 받도록 명시, 종전부지에서 과도한 이익금을 못 내게 한 조항 개선을 통한 이전지역 지원 확대 등을 관철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민간-군공항 이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전남사회단체연합회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도민강연회가 반응이 좋았다. 이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도민이 이를 근거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선 "우주항공산업이 고흥에서 발전하게 돼 모두가 좋아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제조시설 투자도 앞당겨지도록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자"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만큼, 우주항공 체험과 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주테마파크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등 각종 재해 위험지역 점검 및 피해 예방대책 철저, 이재민 발생 시 방역·약품 등 즉시 투입 가능토록 민·관 협력체계 확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타 시·도와의 공조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박종배/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나주 제1호 '나눔 리더' 가입

전남 사랑의 열매 220인의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라남도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220인의 나눔 리더'에 나주지역 제 1호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추진 중인 220인의 나눔 리더는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리더들이 선도하고자 마련된 모금 사업이다.

지난 5월 1일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7개월 간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윤 시장에 이어 이상만 나주시의회의장이 지역 2호로, 강영구 부시장이 지역 3호로 나눔 리더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눔 리더는 연내 1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 실천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도내 생활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소하지만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둘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나눔 리더 가입 소감을 밝혔다.

김영안/기자

화순군 '귀농귀촌인 한마당 행사' 성료

로컬 팜 마켓 5주년 기념행사

화순군에서는 지난 27일 귀농귀촌인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이날 귀농·귀촌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팜 마켓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8년 4월 만연산 생태숲 공원 제3주차장 내에 문을 연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장'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기념행사에서는 화순군 귀농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 등 50여 가지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농부장터가 운영됐으며, 행사장 한켠으로는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떡메치기, 청국장 만들기 체험 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수시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참석하여 여수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귀농인 연대를 도모했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관리하는 로컬 팜 마켓은 개장 이후 무인판매장 형식으로 연중 운영되며, 채소, 잡곡, 작두콩, 여주, 유정란 등 제철마다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500여만 원 이상으로 귀농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구복규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 및 은퇴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발굴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도 "도시민의 유입을 위하여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참여 행정 구현' 나주시, 제1회 시민 정책 아카데미 6월 23일 개최

나주시가 모든 정책의 주체이자 제안자인 시민의 정책적 역량을 키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4회차로 구성된 '제1회 시민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민 정책 아카데미는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정책 의제·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기획됐다.

정책 분과는 '교육·복지', '문화·관광', '창업·일자리·소상공인', '농업·농촌' 등 4개 분과로 아카데미 수강생 총 30명을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정책 전문 특강과 멘토링, 분과 토론, 소관 부서 간담회를 통한 정책 설계와 조례 기획, 제안서 작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머리를 맞댄다.

아카데미는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6월 23일 1회차(18시 45분~22시), 24일 2회차(13~17시), 30일 3회차(19~22시), 7월 1일 4회차(14~16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4회차에서는 각 분과에서 개발한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만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 시행사인 '여의도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통해 지역 미래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제안된 시민 정책은 부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민선 8기 시민에 의한 참여 행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건강증진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건강 문제 함께 해결

30일, 건강증진학교 워크숍에서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과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30일 개최했다.

경기형 건강증진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30일 오후 건강증진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22개 운영교 담당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학생 맞춤형 경기 건강증진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건강증진학교의 이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표 ▲운영교 계획 공유 ▲학생의 건강 관리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건강'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건강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한 용인 상현초와 하남 위례중 사례를 발표했다.

상현초는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연계한 알레르기 홈스쿨링, 우리 가족 다함께 노담(No 담배), 에듀테크 활용 감염병 예방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위례중은 교육공동체 나무 심기, 온라인 문화체험, 전문강사 연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건강증진 사례를 발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운영교 담당자들은 학교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과제별 운영 방안 모색 등 학생 건강증진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도교육청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건강증진학교 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해 학생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건강증진학교 운영교에 정책추진 지원단이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북교육청, 메타버스로 영어실력 UP! 자신감도 함께 UP!

초, 중학생'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성료

경북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운영한'2023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AI 스마트 시대를 맞아 트렌드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고안된 경북교육청 메타버스 영어수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된 1학기 메타버스 영어교실 수업은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에 따라 32개 반으로 편성해 저녁시간(19:00~20:20)을 이용해 총 12회 실시했다.

학생들은 경북교육청에서 새롭게 에듀테크 영어 교육환경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메타버스 영어수업 공간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2명)과 만나 수업하면서 영어 원서 1권 읽기를 완성했으며, 다양한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도 병행하며 영어 실력을 키웠다.

지난 2022년 도내 교사들의 TF팀에 의해 처음 개발된 경북교육청 메타버스 영어교실 환경은 구축비용이 거의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이 없이도 지속적인 사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5% 이상이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가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원어민 선생님과 경제적 부담 없이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참가 학생들도 "메타버스 가상 교실을 통해 다른 학교 아이들, 선생님과 교류하고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수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학생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겸비한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을 단장으로 본청 국·과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한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은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동부·서부·강화)의 청렴 우수사례와 '22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23년도 청렴·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 시책추진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12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운영하고, 모든 업무의 중심을 '청렴'에 놓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파주교육지원청,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 방안 간담회 진행

젊은 세대 및 저경력자가 바라는 수평적 조직문화 이해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은 30일, 파주시 광탄도서관 3층 홀에서 '2023년 파주교육지원청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 방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관내 10년 미만 경력 교원 및 8급(상당) 이하 일반직 중 희망자가 참석하며, 젊은 세대 및 저경력자가 바라는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 및 업무고충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부패취약분야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안내하고 행사의 취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비인격적 대우·불합리한 관행·기타 부당 지시 및 기관장(고위직)의 소통 협업 노력도 등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장 주관 부패취약분야 개선 회의를 연간 상시 운영하여 청렴정책 진행사항을 상호 간 공유하는 등 취약분야 개선 계획 및 방안을 논의하여 내·외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활동

기계중학교기북분교장은 지난 26일,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와 협력하여 진로탐색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진로탐색 활동은 학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의 업무 및 사업 소개 설명을 시작으로 강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 회장 이00 학생은 " 측량장비로 우리 학교 건물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우리 집 논과 밭의 위치와 모양 경계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신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은경 교장은 "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진로 특강 및 진로 체험이 학생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해 나가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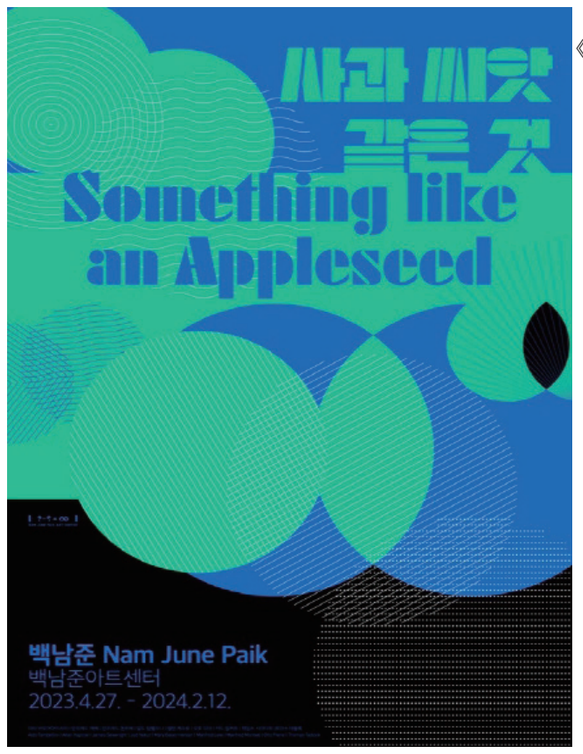
윤타용/기자

5월 경기도 문화의 날, 경기문화재단 문화 소식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5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문화의 날은 31일, 문화주간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미술관은 이건희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계'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 46점과 근현대 미술의 주요 작가 41명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6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5월 16일부터 무료 사전 예약 진행 중이다. 사전 예약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사과 씨앗 같은 것》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백남준의 강연 중 예술과 소통이 교차해 생겨날 수 있는 전에 없던 가능성을 사과 씨앗에 비유한 것을 모티브로 구성된 전시이다. 24년 2월 12일까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프로그램으로 'NJP 크리에이티브'가 있다. 백남준, 예술, 기술, 미디어가 융합된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외에 백남준의 비디오 영상을 볼 수 있는 '한 시간에 단 1초만 존재하는 회화'를 상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학박물관에서는《 동백꽃은 지고 봄은 오고-유배지에서 쓴 정약용의 시와 편지》특별전시가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18년간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 정약용의 가족애를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실학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통해 새들의 특징과 생태계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체험특별전《 산새들새》를 진행한다. 실내프로그램에서는 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고 새를 그리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 실외프로그램에서는 산새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피딩체험,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내 탐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체험특별전은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도서관 프로젝트 – 내일'을 조성했다. 배영환 작가가 컨테이너를 소재로 만든 공공예술작품을 활용하여 만든 야외 도서관이다. '도서관 프로젝트 – 내일'은 박물관 내 야외 '꿈자람터'에 있다. 이 외에 동화구연지도사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보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속으로 풍덩', 지문을 활용하여 문진을 만들어보는 '지문으로 꾸민 문진 만들기' 등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는 환경과 생태계 등 지구적 문제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이한《 오감이 환경 동화 작가전2》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친숙하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전시이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경기도박물관, 경기상상캠퍼스에서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각 기관 및 지지씨멤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클리블랜드미술관 특별한 인연 계속된다

충남도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이 특별하게 맺어진 뜻 깊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윌리엄 그리스올드(William M. Griswold) 클리블랜드미술관장이 상호 미술품의 연구·전시 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2월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품인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반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클리블랜드미술관과 2025년 개관 예정인 충남미술관은 소장품 교류 전시 및 학술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에 협력한다.

도는 클리블랜드미술관을 시작으로, 해외 유명 미술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충남미술관 등을 활용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반출된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충남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1916년 문을 연 클리블랜드미술관은 개관한 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미술관으로, 70개의 전시실과 4만 5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미술품은 370여 점 소장돼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 미술 전시실을 개관하는 등 한국 미술에 관심이 높다.

도와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인연은 2020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반출문화재 실태조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클리블랜드미술관은 분실 사실과 원소장처(한산 이씨)가 확인되자 즉시 반환을 결정했고, 도와 충남역사박물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출처가 분명한 유물은 본 소장처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윤리강령을 이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환된 '백자청화이기하묘지'는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보관돼 있다.

이건호 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관되는 충남미술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 모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강원도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DMZ를 걷다'
정전 70주년 기념하며 DMZ 평화의 길에서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개최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3.8선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에서 관계부처와 3개 시·도 합동으로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한국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소인 'DMZ 평화의 길'은 강원 고성군에서 인천 강화군까지 접경지역의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걷기 여행길(총 524km)로 올해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강원도 구간(5개 군 305km)은 △철원 학저수지, △화천 평화의 댐, △양구 두타연, △인제 향로봉, △고성 통일전망대를 횡단할 예정으로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 탐방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1차 대장정은 내외국인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7월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로 나뉘어 총 140명이 참가한다.

2차 대장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6박 7일간 8회에 거쳐 총 56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DMZ 평화의 길 공식 개통행사도 병행된다.

행사기간에는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해당 시·군별로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시·도는 행사구간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 응급대응 체계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1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6월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유학생과 보훈 자녀를 우선 선정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는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으로 전액 환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정부와 3개 시·도는 올해 행사의 취지인 정전 70주년 기념과 국민화합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연례행사로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한다.

강원도는 올해 개통되는 평화의 길이 침체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등원/기자

경남도, '2023하동세계차(茶)엑스포' 관람객 100만명 돌파!

100만번째 입장 관람객에 차·다기세트 기념품 증정 및 기념 촬영

경남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31일간의 대장정으로 펼쳐지는 '2023하동세계차(茶)엑스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차(茶) 분야 공식 국제행사인 행사이며 두 개의 양분된 행사장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하동스포츠파크와 야생차박물관 일원은 행사 이후부터 꾸준히 관람객들이 찾아 주었고, 27일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 연인들이 몰리면서 온종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27일 조직위 관람객 집계 결과, 엑스포장 방문객이 꾸준히 몰려 개막 24일만에 100만여 명을 돌파하며 하동야생차(茶)의 세계화 및 산업화를 꿈꾸는 엑스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100만 번째 입장객은 엑스포 2행사장에 방문한 '이혜경'씨로 서울 서초구에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엑스포를 즐기러 하동을 방문했다.

이벤트 사은품으로 하동에서 나온 우전 및 다기세트로 선물을 받은 이혜경씨는 "평소에 차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와서 여러 가지 차를 마셔보면서 좋은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자신의 음료 리스트에도 차를 추가하여 꾸준히 마실 계획이며, 이런 좋은 차와 다기 세트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하루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다.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에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주시 GYEONG JU |주관| mire 환동해산업연구원 Marine Industry Research Institute for East Sea Rim EXCO |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해가세요~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 · 수상레저 특별관 (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 · 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긴 터널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강화로!

이철우 지사, 3년 4개월간 위기 때마다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으로 위기 극복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역주도 방역의 선도적 역할

새로운 팬데믹 발생 대비 과학방역, 자율방역과 함께 공공의료체계 강화

도는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신천지, 청도 지역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시작으로 3년 4개월간 전례 없는 위기에 방역·의료 전 분야와 범부처 및 지자체 전 부서에서 역량을 결집해왔다.

이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결정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일상회복과 미래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단축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에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도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하며, 대면 면회 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취식을 허용했다.

이러한 경북도의 코로나19의 위기극복에 대한 역량을 결집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봤다.

◆ 먼저 위기 때마다 전국 최초로 빛을 발한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 전환이다.

경북도는 방역의 변곡점마다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방역패스 중단 건의 ▲요양병원 음압형 환기장비, 응급실 음압격리실 설치 ▲메타버스 신종감염병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안해 지역주도 방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시행'은 '20년 3월 연이은 사회복지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집단 시설 외부 감염원 사전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전격 시행, 도민 보호 에 앞장섰다. 564개 복지시설 종사자 9천478명이 참여, 시설 내 추가 확진자가 단 한명 발생치 않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응, 집단시설 감염차단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았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2021년 4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해 신용카드 매출액(12개 군 지역, 완화 이전보다 평균 10%, 음식점 및 관광업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32% 증가)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며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바 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은 2022년 2월 전국 최초로 도에 주소

둔 도민에게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

2주간 106개 의료기관, 3만여 건을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과 복지증진 에 크게 기여했다.

▶'방역패스 중단 건의'는 2022년 2월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및 대구시 60세 미만 방역패스 해제로 드러난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실효성 문제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 정부에서 전격 수용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대전환의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의 시발점이 됐다.

▶'요양병원 음압형 환기장비, 응급실 음압격리실 설치'로 2022년 5월 사망자 다수가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조기분산을 위해 전국 최초 권역별 요양병원·시설 17개소에 9억 4천만원을 투입, 1개 층 전체에 음압형 환기장비를 설치하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감소시켜 현장에서 국무총리도 극찬을 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전국으로 확산 시행하는 수범사례가 됐다. 또 중증·상급 병원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입원이 거부되는 것을 조기 차단코자 9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 원의 응급실 앞 이동식 컨테이너 음압격리실 15개소를 설치해 신속한 응급대응이 가능했다.

▶끝으로, '메타버스 신종감염병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안'으로 2022년 11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상공간을 활용해 요양병원·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기분산 등 사례별로 나눠 실시간 훈련 가능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 다음으로 코로나 발생률 전국 최저, 지역주도 방역 이끌어 온 점이다.

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30일 기준 총 1,442,502명으로 일평균 6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총 2,114명으로 일주일에 1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연 초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유행 양상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진단·검사, 치료·병상, 백신

·치료제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특히, 2022년 3월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도내 1일 최대 20,781명(전국 621,054명)까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취약시설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신속대응반 운영, 중증 환자관리를 위한 선제적 병상 확보, 권역전담병원 고위험군 환자 병상공유, 화장 문제 해소를 위한 실·국, 부단체장 총력대응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일 때, 요양시설·병원 등에서 여전히 중증자 발생 및 사망률이 높다고 판단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병상운영(중증병원 24시간 운영(1,000개 병상)) ▲생활치료센터(1개소) 지속 유지 ▲외료진료센터(300개)대면진료 강화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27개소)운영 ▲고령층 및 미접종자 대상 예방접종 독려 등의 대응체제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대유행 후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지속 강화와 안정적 일상체제 전환을 위해 역학, 병상, 복지, 심리, 생활대응 등 5대 대응책을 마련했다.

▶**'역학대응'**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와 재조합 변이 대비·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신속 대응정예

반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경북도-시군 실시간 역학·분석, 위기 단계별 보건·행정인력 확보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 확립, 방역요원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 효율적 역학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상대응'**으로 감염병 응급상황 시 가장 필요한 병상배정을 재유행시 즉각 병상 가동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소아·임산부·투석환자 등을 위한 특수병상 운영관리, 확진자의 전문적 분류 와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재택·병원·생활치료센터 매뉴얼 정립으로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대응'**으로 취약/고위험시설 취약층에 대한 복지대응 매뉴얼이 중요함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에 의료 기동전담반 지속 운영, 효율적 재난지원금 지원 위한 부단체장 중심 재난지원금

TF팀 구성 마음 안심 앱 등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에 총력을 기울였다.

▶**'심리대응'**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유행시 격리 및 단절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코로나 블루 대응반을 운영 하고, 비타버스 운영, 외로움 대책 수립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적극 대응했다.

▶**'생활대응'**으로 재유행시 방역적·의료적 대응 외에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응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시군 간 유기적 공동체계 구축으로 장례·장사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역을 위한 진단키트, 마스크 등 비축물자 확보, 영세·소규모(30㎡이하)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에도 집중했다.

이로써 도는 인구대비 코로나 발생률 55.0%로 전국(60.9%)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나타나, 지역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지역주도의 방역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이다.

지난 3여 년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체계가 취약한 도의 현실 감안 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특히,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사망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관련된 문제로 이어져 지역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지방의료원 기반시설/장비개선, 인력보강,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경북도는 2022년 4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경북도를 6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공공보건의료 정책발굴과 실행 지원 전문지원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을 본격화해 공공보건의료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나아가 2022년 8월 도와 경북대학교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업무협약으로 안동의료원의 공공의료본부장으로 경북대학교 교수(내과 전문의)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 받아 그간 전문의가 없어 중단된 인공신장실 운영 재개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도민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도는 올 2월 지방의료원 운영 전략을 포함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로드맵을 수립, 5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 경상북도 의사회,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했다.

상급병원이 없는 경북도의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훈련도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 계기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방역과 지역주도 대응역량 확보이다.

5월 11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지역실정에 맞는 `과학 방역'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도는 그간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지역주도 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보다 강력한 필수의료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 전국 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있고 유효한 전략으로 경북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나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